

죽은 자의 얼굴로 발화한 예술, 산 자가 감당해야 할 윤리의 형상

민중미술 화가 오윤 작고 40주기 기념... 삶·작품 집대성한 첫 단행본 '오윤, 얼굴을 응시하다'



1980년대 민중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오윤(1946-1986)의 예술을 전면에서 다시 바라보는 첫 단행본이 출간됐다. 작고 40주기를 맞아 미술사학자 배종민이 펴낸 '오윤, 얼굴을 응시하다(문학들판)'이다. 오윤의 삶과 작품을 정치적 구호나 시대적 상징으로 환원하지 않고 형상과 기억, 감응의 구조 속에서 재배치했다.

오윤은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중미술의 형성과 전개 과정에서 결정적인 위치를 차지한 작가다. '현실동인'(1969), '현실과 발언'(1979), '민족미술협회'(1985) 등 대표적인 민중미술 단체의 창립에 모두 참여한 유일한 작가였으며, 그의 작업 궤적은 곧 민중미술사의 흐름을 가늠하는 기준점으로 읽혀 왔다.

하지만 이러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과 작품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단행본은 그동안 전시도록을 제외하면 거의 없었다.

'오윤, 얼굴을 응시하다'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책이다. 1980년대 시집과 소설집의 표지로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대중에게 각인된 그의 관화는 익숙하지만 정작 그 형상이 무엇을 향하고 있었는지, 어떤 윤리적 질문을 품고 있었는지를 차분히 짚어낸 연구서는 드물었다. 오윤의 예술을 깊이 알고 싶어도 참고할 만한 자료가 부족했던 독자들에게 이 책은 하나의 종합적 좌표를 제시한다.

이 책을 쓴 배종민은 한국 현대미술사와 민중미술운동사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미술사학자다. 저자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윤의 작품을 반복해서 응시하며 말하지 않는 그림과 침묵하는 선, 죽음을 죽지 못하고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형상을 읽어내려 했다. 학술 논문으로 축적해온 연구 성과를 일반 독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



대지



춘무인 추무의

어낸 점 역시 이 책의 중요한 미덕이다.

저자는 기존의 정치 이념 중심 해석을 넘어 오윤의 예술 세계를 '탈-해골-도깨비-칼노래-귀환하는 인간'이라는 도상 계보와 '감응의 윤리'라는 키워드로 새롭게 조망한다.

이 책은 개념을 앞서 설명하기보다 작품을 차분히 따라가며 읽어가는 방식을 택한다. 이러한 서술은 오랜 시간 작품을 바라보고 사유해온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책은 총 4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오윤 예술의 형성과 전환을 살피며 그의 인식론적·윤리적 기반을 검토한다. 2부는 1970-1980년대 출판미술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그의 활동을 추적한다. 3부는 대



표작 분석을 통해 죽음과 기억, 침묵과 응시가 어떻게 형상화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읽어낸다. 4부에서는 후기 작품을 중심으로 귀환과 해원, 신명의 리듬으로 나아가는 감응의 구조를 조명한다. 각 장은 작품 해석에 충실하면서도, 오늘날의 시점에서 다시 질문해야 할 윤리적 과제를 함께 제기한다.

저자는 오윤의 예술을 '해도의 불가능성을 넘어 감응의 가능성을 여는 예술'로 정의한다. 그는 "오윤의 관화는 죽은 자의 얼굴로 발화한 예술이자, 산 자가 감당해야 할 윤리의 형상이었다"며 "이 책은 오윤을 기념하는 데 머무르기보다, 지금도 그의 예술이 우리를 향해 던지는 물음에 응답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새로 나온 책



▲양념의 인문학-정혜경, 신다연 저

이 책은 한식문화를 연구하고 알리는 데 앞장서온 정혜경 교수가 젊은 연구자와 함께 완성한 한식 4부작의 마지막 편이다. 한식의 양념은 소금, 간장, 설탕, 식초 같은 조미료와 마늘, 파, 후추 같은 향신료를 조합해 만든다. 음식에 따라 어울리는 조합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갓은양념'이라는 만능 양념도 그때그때 응용해 사용한다. 채소를 소금에 절인 보존식품은 세계 어디나 있다. 그러나 여기에 갓과 파, 마늘 그리고 젓갈과 고춧가루를 섞어서 발효시키면 어디에도 없는 음식, 바로 '김치'가 된다.

/따비·2만원



▲글을 쓰면서 생각한 것들-임경선 저

누구나 글을 쓰는 시대다. SNS에 일상을 기록하고, 블로그에 서평을 올리고, 유튜브 대본을 작성한다. 글쓰기는 이제 특별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정말 누구나 글을 쓸 수 있을까. 이 책은 특유의 냉철한 시선과 솔직한 언어로 글쓰기를 둘러싼 환상을 걷어내고, 그 이면의 진실을 드러낸다. 그 어떤 결과가 보장되지 않아도 '글을 쓰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글쓰기에 대한 정직하고 내밀한 고백이다.

/토스트·1만8천원



▲인간은 동물이다-마르크스 가브리엘 지음, 전대호 옮김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동물이지만 그렇다고 그저 동물에 불과한 존재는 아니다. 스스로의 취향성과 책임을 자각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며, 세계와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 한다. 마르크스 가브리엘은 이 책에서 '인간은 동물'이라는 사실과 '우리는 자연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경험 사이의 긴장을 정면으로 탐구한다. 해답은 자연을 지배하려는 기술도, 자연에 대한 낭만적 환상도 아니다. 그는 자연과 동물의 근본적 타자성을 인정하고 알 수 없음 앞에서 겸허하게 응답하는 '무지의 윤리'를 제안한다.

/열린책들·2만5천원



▲간반 치는 닭-이산야 저

간반을 톡톡 치는 닭처럼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세상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존재다. 아동문학 학자 이산야 시인의 두 번째 동시집이 출간됐다. 이 책은 주제에 대한 지나친 미사여구가 사라진 깔끔한 동심(童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시선을 잡는다. 특히 모든 주제가 성인의 시각이 아닌 동심의 시각에서 주어진 것들이다. 송진 시인은 이산야 시인의 동시 세계를 "얼룩말 같은 아이들이 시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놀고 있다"고 평했다.

/작가마을·1만5천원

사진·글로 기록한 여수의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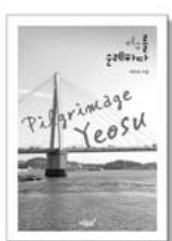
여수의 숨은 비경과 소소한 일상의 아름다움을 발로 뛰며 기록한 SNS 서포터즈의 글이 한 권의 수필집으로 탄생해 화제다.

11일 여수시에 따르면 SNS 서포터즈로 활동 중인 박주희(63·여·사진) 씨가 첫 수필집 '여수를 순례하다'(도서출판 지식과감성)를 출간했다.

이번 수필집은 박씨가 2021년부터 서포터즈로 활동하며 개인 SNS(페이스북)에 연재했던 250여편의 기록을 엮어 다듬은 결과물이다. 단순한 관광지 소개나 여행기를 넘어 작가가 직접 골목과 바다, 숲을 걸으며 느낀 감정과 치유의 순간들을 담아낸 '감성 순례기'다.

책은 ▲작은 도시, 여수의 매력 ▲여수의 바다 ▲여수의 노을 ▲섬섬 백리길 등 총 4장으로 구성됐으며, 글과 사진이 어

여수 SNS 서포터즈 박주희씨 수필집 출간



우려져 여수의 깊이 있는 매력을 전한다. 특히 상당지도를 전 공한 작가답게 풍경 묘사를 넘어 독자들에게 마음의 위로와 힐링을 건네는 따뜻한 시선이 돋보인다.

한 시선이 돋보인다.

박주희씨는 "올해 열리는 '2026 여수세계계림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응원하고, 여수 구석구석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싶어 출간을 결심했다"며 "이 책이 여수를 찾는 이들에게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따뜻한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김진선 기자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근대 광주 학교 이야기' 발간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근·현대 광주 학교의 형성과 일상을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정리한 단행본 '근대 광주 학교 이야기'를 발간했다.

'근대 광주 학교 이야기'는 그동안 제도사나 개별 학교가 위주로 단편적으로 다뤄져 온 광주 교육의 출발을, 학교라는 공간과 일상의 층위에서 입체적으로 재구성한 최초의 종합 기록물이다. 광주 교육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교실·운동장·교문 안팎의 풍경들 통해 조망함으로써 교육사와 도시사의 흐름을 함께 담아냈다.

이 책은 학교의 공간과 일상을 중심으로 광주 교육의 형성과 변화를 입체적으로 복원한 기록물로 ▲학교의 풍경과 교실에서의 배움 ▲광주 학교 건물의 형성과 변천 ▲격변의 시대를 살아낸 교사들의 삶 등 학교 상징을 통해 근대 광주 사회의 형성 과정을 수록했다.

/최명진 기자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